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 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を無視하면 特殊한政治的新解決 例하면 太平洋 로카르노條約類의相互協定事가 成立되기前에는 海軍豫算의 膨大는 不可避的인 現實이 되고말것이다

東洋人差別移民法 修正案反對氣勢

歸化委員會의排日移民法再檢討言明

米政界輿論樂觀不許

【華府十二日發同盟】米國下院移民及歸化委員會 委員長딕스타인氏는 過日今議會에서 現行所謂排日移民法에 誠意를가지고 再檢討할用意가 잇다는旨를 言明하야 各方面에 多大한 反響을 惹起하엿는데 一部에서는 벌서부터 移民法 修正反對의 소리가이러나 칼리포르니아州 選出共和黨議員 웰리氏는 十二日比島人을 비롯하야 所謂同化不能한 東洋人에 配當制를適用함에는 어데까지던지 反對한다고言明하엿다 議會方面에서도移民法修正에는 贊否兩論이 잇스므로 前途는 樂觀을不許한다

伯移民法에關한 츠비노氏報告書

【리오데자네이로十二日發同盟】부라질下院憲法委員會移民法案委員츠비노氏는 十二日委員會에報告書를 提出할豫定이라하는데詳細한 內容은 아직判明치안흐나 同氏가前日發表한 意見으로부터 判斷한다면 外國移民의 入國을 促進하는 規定은 大體산파로州의 修正案을 承認한 模樣이다 但外國人의 同化問題에 由來한 植民地의 敎育諸規定에 關하야는 單純히 산파로州案 勞働省의 原案 通商審議會案의 三案이 이미現狀의急激한 改革을要求하고잇슴에 對하야 츠비노氏案은大體로 現狀을維持하라고하는模樣인데 同氏는말한다 報告書는 八日委員會에 提出할터이엿는데 人員不足으로中止하고 今日 人員만 全部出席하면提出할터이다 그러나 詳細한 內容은 發表할수업다 憲法委員會에는 二名의산파로選出代議士가 잇는데 一名은政府系이오 一名은 反政府系이다 二名이모다츠비노氏案에 贊成을表明한 模樣이다 게쓰리오大統領도 산파로發展을爲하야 移民問題의圓滿解決을期待하고잇다고 傳한다

叛軍政府 壯丁及歸休兵召集

【아비라十二日發同盟】西班牙叛軍政府는 十二日一九一五年十月乃至十二月出生壯丁및 一九三〇年의 歸休兵에 召集令을 發하엿다 叛軍은 兵力을 倍加하야 단번에 政府軍을 殲滅할意圖이라고 推測된다

社說

米主力艦二隻建造着手

列國建艦競爭에拍車

一

外電에 依하면 米國政府는 新年度에 主力艦 三萬五千噸級二隻建造에 着手하기로決定하고 또 他面十個年計劃으로 約二億弗의 巨額을投하야 補助艦艇五十四隻을 建造하기로하엿다 그런데特히 注目할것은 이計劃은 一九三四年에成立된 有名한 海軍艦艇百八隻建造를規定한 빈손大建艦案의 繼續事業으로 하는것이아니라 이 旣定計劃과는 全然別個로 無條約海軍狀態에 對應키爲한 別個事業으로한點이다 이것은말할것도 업시 이른바 太平洋圓形陣 作戰遂行에 잇서서 第一戰鬪部隊의 强化를 企圖하는것으로서 그目標가 對日渡洋作戰主義에 잇슴은 疑心할수업는 것이다、同時에 이事實은 日英兩國의 海軍力의 相對的增强을 招來하는것으로서、그것이 世界建艦競爭의 激勢를 더욱 强調케하는結果가 될것은 말할것도업다

二

現在 三大海軍國인 日英米三國의 海軍力을 一九三五年九月末日現在로서 對照하여보면 主力艦에 잇서서 日本은 九隻에二十七萬二千十噸 英國은 十五隻에 四十七萬四千七百五十噸 米國은 十五隻에 四十五萬五千四百噸으로 英米實力이 相伴한데 反하야 日本은 隻數에잇서서나 噸數에잇서서나 劣勢에잇다 補助艦艇에잇서서도 巡洋艦을除하고는數量으로는 大體同一한相對的水準을가지고잇다 그럼으로 日本海軍으로서도 主力艦 二隻을建造하는中에 잇다할지라도 米國의主力艦二隻建造와 英國의主力艦二隻建造가 旣定事實이된以上 이相對的數量關係는 狀態에 直面케되엿다할것이다、勿論各艦種의 性能에잇서서 米國의그것은 老朽艦이만흔것으로써 日本의그것은 新銳의것이만흔것으로써 實際上의 隔差를減少하는바이겟지마는 엇잿든、이狀勢가未曾有의 膨大한 明年度海軍豫算을 成立시길 客觀的條件이되고잇는것은 首肯될點이다

三

米國의 主力艦建造가 三萬五千噸級의 方向을 取하게되엇것은 그極東問題容喙를 前提로한 渡洋作戰進攻主義의 結果인以上、日本海軍의 太平洋作戰의 基準이 이에 對應될것은 自明의 事實이다 이에加하야 英國極東艦隊의 增强、및新嘉坡 香港의 海軍根據地强化案에 想到하고、더욱이 華府條約의 失効結果太平洋防備制限條約이 無効된 狀態를 생각하고、蘇聯極東艦隊의 强化傾向까지를 考慮에 넛는다면 太平洋上을 中心으로한 列國海軍競爭의 激化는 從來에업든 規模로 進行될것을 斷定할수잇다 政治的相互諒解가 華府條約締結當時에 比하야問題도 안되는것

루즈벨트大統領 行政機構大改革

民主主義運用確保가그目的

米行革史上空前之事

【華府十二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再選의余威를모라 行政機構의 根本的改革을斷行하기로決定하고 特別委員會에서 改革案을立案中 還聞成案을어덧스므로 十二日正午頃 特別敎書를 上下兩院에보내고 改革案의 採擇을要求하엿다 改革案의 最大眼目은「根本的民主主義의運用確保」에잇다고하는데 米國歷史上 空前의「徹底的行政機構改革案」으로 同案의成立에依하야 大統領의行政上에 잇서서의 權限은 顯著히增大되며 不況對策으로 設置된 各種應急的機關은 調整統合되여行政官吏는 政黨政派의 政治上勢力圈外에서서 行政事務의遂行이可能하게될것이다 行政機構改革案의要旨는 如左하다

一、厚生省及公共事業省을 新設하며 內務省은 保全省이라고改稱하고 十二省下에 協議會委員會等 百餘個의 獨立機關을分屬시킴

一、大統領下에 六名의「行政補佐官」등을 任命하고 大統領에게 大統領本來의使命을遂行시키는 組織으로함 但白堊館官房으로現在대로 大統領秘書에 大統領 民間제임스·루즈벨트를 任命하야 議會와의連絡에 當케할

一、財務省豫算局을 大統領의直屬機關으로하고 豫算編成外에 가、情報및公表에關한 綜合的權限 나、政務關係各般의調査 다、行政命令의公布 라、議會에對한勸告案의 作成 마、政府各機關相互間의調整等의任務를兼한

一、文官任命制 政治的壓力을排除하기爲하야 文官任用制를擴張하며 各省局의最高官吏를除한外 一切官吏에 適用할 그結果官吏의身分이 保障되여大統領이바귀는때마다 行政機關의幹部에 變更이發生하는것을回避할 現在의文官任用規定을 廢止하고 大統領直屬의새로운機關을 任命하고 文官의任免을 干涉하며 또 無給名譽職七名으로成立되는諮議會를任命하야 諮問에應케할

一、會計檢査局 會計檢査局을 廢止하고 오ー데라ー·제네랄을 設置하고「不法乃至不當한支出」에對하야議會에報告시킴 檢査官은 現在行政各機關의 支出에 對하야拒否의權限이 附與되여잇스나 새로운 오ー데라ー·제네랄에는 右權限을 不與함 (사진은 루大統領)

外交失敗는歷歷 再建이刻下急務

稅制問題에關하야도嚴正再檢討力說

政友總務會의强硬論

【東京電話同盟】政友會는 十三日午前十一時부터 院內外總務幹事長의 定例午餐會를 芝區三條亭에열고 安藤幹事長으로부터 今日은 正式總務會는 아니나 緊迫된 外交問題其他에對하야 腹藏업는 意見을 交換하고자 생각한다 고 最近의政情을 報告하고 協議에들어갓는데 午餐後 主로 外交稅制兩問題에 對하야 鳩山總務 其他諸氏로부터 忌憚업는意見을 開陳하엿는바 모두 强硬論을 述하고 다만 그具體的取扱方法에 關하야는 愼重히考究한後 可及的 速히決定하기로 되엿는데 結局 外交失敗는 歷歷하야 蔽할수업는 事實인데 速히 如斯한蹉跌狀態를打開하야 根本的再建을 斷行하는것은 目下의 焦眉한 急務로 外交問題先決을 主張하여온 我黨으로서는 速히 그責任을 質하는同時에 最善方法을 講究할것이다 또 稅制問題는 國民生活에 緊密한 關係를가진 重要法案이다 그런故로 嚴正한 檢討를 行하고 歲出豫算은 그財源을 國民의 血稅에 求하고잇슴으로 現狀에 拘束되지말고 卽時國家本位 政策을 考究할것이라는 意見이 一致된後 午後四時지나 散會하엿다(寫眞은 鳩山氏)

官界異動豫想

西鮮合同電氣社長 山本犀藏氏 退任에伴한 官界로부터의 轉入은 近近實現하게되엿다 卽 士師慶南知事의 西鮮合同社長入은 確定的이며 이에伴한 異動은 小範圍에 끄칠意向인데 慶南知事에는 相川外事課長 佐白京畿、阿部慶北兩內務部長等이 風說에올르며 相川外事課長이 가장有力視되고잇다 外事課長轉出의 境遇에는 그後任으로 鹽原總督秘書官、秘書官後任에는 松澤農務課長 或은 滿洲國方面으로부터 轉入이될것이 아닌가고傳하고잇다

植民地返還에關해 獨佛具體的交涉?

獨逸要求가實現되는때에는 日本도財源分配要求?

【東京電話同盟】英佛兩國政府는 過般 歐洲政局의 全般的處理案으로서 獨逸政府에 對하야 原料資源및 植民地에關한 要求를 考慮한다는旨를 非公式으로 通牒하엿는데 兩國當局間에 交涉을 거듭한結果獨佛獨逸經濟相 샤하트博士는 近近 巴里에 出馬하야 具體的으로 折衝할것이라고 期待되고잇다 原料資源問題에對하야는 日本에도至大한 關係가잇스므로 外務當局에서는 獨佛交涉의 進展에對하야 多大한注目을 끌고잇다 나치스政權은 賠償問題의解決 라인란드再回復 軍備平等權回復等 着着 나치스行動을 實現하고잇고 남은것은植民地回復뿐이다 나치스政權의 全體인 히틀러總統의『余의鬪爭』에依하면 나치스發展의 方向은우크라이나를 비롯하야 발칸諸國地方等으로 이미 昨年九月開催된 나치스大會에서 히틀러總統은 宣言書를 發表하고 獨逸民族의植民地回復熱을 强調하며 우크라이나地方 進出의 歷史的合理性을 表明하는等 그行動은漸次로 具體化하여왓는데、民族的膨脹能力을 國際的拘束等으로 抑留되는것은 아니나 이를 否定하면 歐洲動亂을 誘導함은 必然的임으로 英佛等國際的 부르조아國은 스스로 그領土를 開放하야 民族的發展의 進路를 與하야 動亂을 未然에 防止시키고자 爲先 獨佛間에 具體的 折衝이 開始되게된것이라 推測된다

그리고獨逸에 開放될것으로豫想되는 地域은 아프리카의 舊獨逸領인데 現在委任統治領으로되어잇는 카메룬、토ー고ー란드의兩地方이나 아프리카에잇서獨逸의 希望하는 地域은 氣候上으로 移民에 適當한 西南아프리카及 原料資源이 豊富한 탄가니카의 兩地方이므로 英佛側과相當한 意見의 懸隔이 잇슬뿐아니라 南阿聯邦도 獨逸의 希望은 强力反對하고 잇스며 또 英佛은 白耳義、葡萄牙와의 아프리카 植民地에 對하야도 讓渡를 要求하고잇스나 此等諸國은 그要求에 不應의 意向을 表하고잇서 實際問題로서는 植民地問題의 折衝은 相當히 困難할것이라고는 하나 그러나 獨逸의 植民地問題가 國際的互讓에依하야 圓滿解決을 본다면日本에잇서서도 原料資源의 確保를 求할方針이므로 獨佛折衝의 結果는 日本에도 重大關係가잇다하야 當局은 多大한 關心을갓고잇다

뭇솔리니首相에 飛行操縱士免狀

【羅馬十二日發同盟】當代가장精力的이라는 뭇솔리니首相은「空中旅行」을즐기어 六日부카·데·카미나ー테飛行場에 ... 操縱하여 飛行하엿는데 愛壻치아노伯及兩令息等이 拔群의殊勳을세운바 試驗에 ... 今回「陸軍飛行操縱士」試驗에 及第되야 一個의飛行操縱士로되엇다 二日早朝飛行服을몸에 걸고리트리아飛行場에나타나 空軍省次官바르레 將軍을 委員長으로한試驗委員의 注視中에서 發動機三基의大型 軍用機에搭乘 一千米의高度에飛翔、操縱規定에따라飛行術의上空을 數回旋廻하엿다 地上에는바르레 將軍以下가 能熟한 飛行術을稱讚하고잇섯는데 前後一時間半拔群의 成績을示한結果 陸軍飛行操縱士의 免狀을밧게되엿다

本社辭令

(一月十二日附)

編輯局次長兼政治部長 咸尙勳

解兼任

編輯局政治部次席 韓[illegible]容

任政治部長

編輯局外報部長兼論說委員 洪陽明

解外報部長

專任論說委員(部長待遇如故)

夕刊後市況 十三日

◆朝取短期◆

	後引	高値	低値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	―	―	―
日魯	―	―	―
同新	―	―	―
商船新	―	―	―

◆東京短期◆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曆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糸 後引◆ 當限九二五〇〇 先限九一九〇〇

◆各地人絹 後引◆ 京東當限九二九〇 先限九一五〇 福井當限九二〇〇 先限九二〇〇

印度洋을건느며

❷ 歐洲가는길에

白麟濟

三

지난六日 제가京城을 出發하는날 罪悚스럽게도 여러어른들이 驛頭에나오서서 저를 盛大히보내주시든 光景이 제一生에 잇지못할光榮이엇사오며 먼길을떠나오는 제가 도로혀 一一히 차자보이고 辭別의 人事를드려서야할 어른들이 만헛는데 하고於心에未安함이 只今도 사라지지를못합니다

아시는 바와가티 제이番길이 무슨榮光의길도아니요 남들은 羨望할 길도못되고 또前日과가티數萬里異域에 重大한 責任을 가지고 가는것도 아니올시다 交通이나通信이 至便한오늘에 가벼웁게보면 한好事꺼리에不過하다하겟습니다 그도 큰責任을지고 復命의材料를 모으러가는것도아니고 오직 自己專門에 屬하는 外科學을 自由로운立場에서 맘대로보고 배울것이잇스면배우고 參考할것이잇스면 參考하라는 意味에 지나지못하는 官費中에는 가장割하고 自由스러운責任밧이올고 그外에는 專門以外의 各般西歐文物에 接할機會를 바든데不過합니다

그러하온데 同胞여러어른들이 이러케 盛大히 저를보내주시니 罪悚스럽사오며 제가벌게생각한以外의 무슨 深重한 責任이 잇지아니한가 생각됩니다 勿論官費로서 歐米在留를 하는이로 朝鮮사람으로는 첫인가합니다

첫재 가튼돈이라도 私財를가지고 歐米行을하는것과 旅行者의 心理上 負擔이 大端히 다른배잇다고 생각됩니다 배를타고 豪華로운 生活을하며外國港口의 異景을 날로보고 도라다니는 동안에 이心理가 一層分明히 알아집니다 一定한期限內에 相當히巨額(官吏나 俸給生活者로는 旅費로 말고다른手當其他로도 바랄수업는 外國旅費規定에依한 學費와 旅費 이니까)을맘대로 다써야 한다는一種金錢愛着心을 强制的으로 떼여버린 돈을 쓰게됨으로 맘가벼웁게 날마다 相當한 消費生活을하게됩니다

둘재로 普通三四十歲 有識紳士로서는 容易히엇지못할 一年以上의時間 더구나職을 떠남과同時에 아모거리낌이 업고 맘것리는데가 업는一年의 長時間을가지게 됨이 무엇보다도官費旅行의 最大恩惠인가 합니다 이런意味에 잇서서 제이번길이 엇기쉽지못한機會로 따라서가장抽象的이나마 무슨期待를가지고 떠나야하겟고 또어떤期待를 바라는 이가게실것으로 생각되나이다

다시금 驛頭에서 뵈올던 好意로갓득찬表情으로 저를 보내주시던 여러어른들의 얼골을回想하옵고 深深心謝하오며 힘써期待하심을 저바리지안호랴고心誓하나이다

四

먼길을 떠난 제心頭에 片時라도 떠나지 안는큰슬픔을 다시금아뢰하나이다。제가 洋行하기로作定된後 얼마아니하야 지난여름에 故劉相奎君이卒逝하얏습니다 實로 제一生에 이보다 더큰슬픔이 업스리 만치 놀나고失望하얏고 어찌 할바를 모르게 痛哭을 하얏습니다。이제 제私交의親信을 부질업시 重言한대야 무슨所用이 잇사오릿가마는 하도 밋부고힘이되고 苦樂을가티 하든親舊로 또 여러분도 저를 생각하실때에 반드시 그를聯想하시리라고 미드리만치 二人同心으로의 存在이엇던 새이오니 제가 이제 印度洋호른물을 건늘제 멀리地平線上에 떠러저가는 夕陽을 바라보며 平生의信友、劉君의 一死를回想하고 旅愁에 疲困한두눈에 새눈물을자아내고잇는 心情을 吐露함을過히 責妄마시기바라나이다。

이번길에 東京을들려 只今東京赤十字産院에서 要職을 마타가지고 게시는 許英肅女史를차저갓섯더니 人事말슴도 맛추지못하고 두사람이 한참이나 늣겨울엇습니다 許女史가 저를보고 痛哭에가까운 설음을참지못하고 故劉君을 슬퍼하심이 어찌 背通의 故友를 哭하는 情例에 따랏슴이라기 實로 믿고 알아주는信友로서의 劉君의 存在는 許女史에 잇서서 저보다도 重하고 貴하얏든것임을 제가 가장 절실히 알엇기 때문에 저는 그아프고 애달퍼 하시는心理를 爽心同情하얏습니다。

許女史로말하면 제가가장 敬愛하는 先生이오 故鄕先輩어른의 夫人이신同時에 그스스로가 제가가장밋고 期待하는 親舊요、同業者의 一人이외다 그가昨年에 家業을停止하시고 決然히 渡東하야 꼿東都의權威이요 제舊師이신 日赤産院長인 久慈博士를차저 一個學徒로의 入院을 懇請하야 그許諾을어든後로는 實로 立志傳中의學徒生活을 繼續하신結果 只今院內의信任을 一身에 集中하고 要職에 게시게된을 보오니 제맘이 快心함을 不禁하겟사오며 特히 제가 産院을 차저가 久慈博士를 만낫슬때에 久慈博士는 勿論 副院長 醫局長 以下 여러 職員이 저를 朝鮮의 重鎭으로 歡待함을 볼때 저는 間接으로 許女史가 本院에서 어떠케 待接을 밧고 게시며 重要한 存在로 되여잇는것을 짐작하얏습니다。實로 快心不禁의 心境을 맛보앗사오며 더욱이 許女史의 希望에 가득찬 眞摯한 每日의 公生活을 보고 또 그의 勇氣에 찬 決心을 들을때에 信友에 對한 敬意를 더하고 他面으로 朝鮮의淑女를 爲하야 祝福함을 禁치못하얏나이다 東京서는 또 關梘、張秉良兩友에게 만흔신세를젓습니다、秉良君은 前부터 親하려이라 가지가지浮談을 만이 로기뻐하고 고맙게생각하오며 一親切로말하면 實은 東京서 偶然히만난 初面親舊이나 二日의心交가 兩年 다가리舊友와 가튼 信許를하게되얏습니다 同鄕의 關係가 時間과 距離를 省略하고 接近하기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下略) ―(繼續)―

重要産業統制法 朝鮮에도議會前實施

【東京電話同盟】朝鮮의 重要産業統制法適用에對하야는 昨年十月朝鮮産業經濟調査會直後 日本內地 當局과朝鮮當局間에 交涉이 進行되든結果 이를 實施하기로 方針을決定하엿는데 施行方法 其他에關하야 朝鮮內特殊事情으로 主張하는 總督府및 拓務省과 日本經濟權衡上一率로施行하여야한다고 主張하는 商工省間의 意見이 一致되지못하고 또 새로統制委員會設置에關한 法制上 意見不一致로 그今日까지 施行되지못하엿다 그러나永田、小川兩相은 昨年特別議會에서 朝鮮에잇서서도 重要産業統制法을 施行하고 日本內地와朝鮮과의 經濟一體政策을 遂行하는旨를言明한 關係上 一日이라도 速히實施할 必要가잇스므로十二日 이問題에 關하야懇談을遂하고 十三日도拓務 商工兩事務當局과 交涉한 結果 아니라도 議會前까지에는 施行하기로意見이 完全히一致되엿다 또實施方法等에 對하야는 大體日本內地와가틀것이나 多少朝鮮內의 特殊事情을 考慮할模樣이다 또紡績業、製粉業도將來에는 同法의對象으로될것으로推測되며 硫安工業에 對하야는將來肥料事業統制法에依하야 新組合加入進展될것으로 推測된다

朝鮮適用은來週中

【東京電話同盟】外地에對한 重要産業統制法適用問題中 朝鮮의 세멘트工業도 最近 半個年間에 그生産額및 價格은 法的適用을 바를 適當한水準에達하야 大體로 實施하여도 關係업는 狀態에 이르럿스므로 內外地當局에서 施行準備中 마친내 來週中에 實施할豫定으로되엿다

四氏에勳章佩用禁止

【東京電話同盟】勳章疑獄、五私鐵에서 一年의刑을바든 小川平吉氏는 昨年九月十九日 勳一等及各種功勞章을 褫奪當하고 市會疑獄元東京市高級助役 白上祐吉氏도 昨年八月 勳三等을 選擧違反으로失格된 元代議士中野寅吉氏는 勳四等 丸山浪彌氏는 勳六等을 褫奪되여 佩用을 禁止되는旨 十三日官報로 公示되엿다

西班牙叛軍政權 九海港에水雷敷設

駐葡日本領事館에通達

【東京電話同盟】西班牙叛軍政權 리스본駐在大使는 十二日本大森葡萄牙代理公使에 對하야西班牙沿岸九海港에 水雷를敷設한旨를正式으로通告하엿다 日本政府로서는 아직叛軍政權을 承認한前提로取하지아니함으로 右通告에對하야는 意思表示를 避하고單純히 通告受理의 旨를回答시킬方針인데 通告文 內容은 如左하다

一、프랑코政權은 一月八日以來 左의九港에 面한 領海(沖合三浬)에水雷를 敷設하엿다 마라가、아르메리아、카르타헤나、바르셀로나、발렌시아、타라고나、빌바오、산탄델、히홍

二、九海港中 바르셀로나 빌바오、산탄델、히홍의四港을 全然封鎖하고 五港에는 特히入港通路를 設置하엿다

三、프랑코政權 權力下에잇는諸港에入港하는 船舶은 미리水先案內를 依賴하면 安全하다

梅毒과病毒을 驅逐하라

一瓶 金一圓五十錢

最高의治病劑

어을빈 魚乙彬

만병수정 萬病水錠

一瓶金二圓

보재약정 補材藥錠

慢性胃腸病 만성위장병 神經衰弱 신경쇠약 重病回復 중병회복 動脈硬化 동맥경화 精力減退 정력감퇴 食慾不進 식욕부진 體質虛弱 체질허약 心臟諸症 심장제증

金鷄納 二十五구람入 金五圓 / 十二구람入 金一圓六十錢

補材膏藥 화상·태독·종기·두창·상창 金五十錢

疥瘡膏 모든옴병 金五十錢

◆廣告冊進呈 ◆僞造藥注意

朝鮮釜山府榮町

魚乙彬製藥株式會社

電一九三九番 振替釜山五〇〇

鴨綠豆滿 兩江對岸에 警備陣强化緊急

現在와將來移住民의治安確保를爲하야 朝鮮과滿洲側에서協力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豆滿江)대안은 비록국경을 달리하고 잇다고는하나 조선인의 이주상래로보면 거이조선땅이나 다름업슬만큼 다수가 거주하고잇다 그런데 그치안상태가 아직도불안하야 안심하고 농사를짓지못하는곳이만타 그중에서도 두만강대안 간도성(間島省)일대는 대단히 치안상태가 회복되여 잇스나 압록강대안은 아직도 위험한중 한남과 평북대안의장백현(長白縣)과 림강현(臨江縣)은 더욱 위험한상태에잇서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전전긍긍한상태에잇다 총독부당국에서는대안의곳안이 불안하다는것은 곳조선내지에도 위협이 될뿐더러 대안의 이주농민들을 위하여서도 될수잇는대로 속히근본책을 강구할바이어서 년래로 노력중 금년부터는 관동군과 만주국당국과도 종래보다 긴밀한연락을취하여대안의치안유지에 힘쓰게될터이다 즉대안의치안을 위협하고잇는 토병의수는 수년래의 대규모의토벌로 일변전만해도 압록강대안일대에 약오륙천명은 잇스리라고 추정한든것이 최근은약삼천명가량밧게 안되리라고하며 조선내로 월경치안하엿다는 수도 작년중에는 평북대길(大吉)에 침입햇든것외에는 별로업서 변변히치안상태가 회복되여가는것만은 사실이나 그러나아직도이 주농민이 안심하고농사를지을정도에는 이르지못한상태에잇서 직접총독부당국으로서는 현재의 이주농민들을 위하여서나 금후의 이주농민을 위하여서나 금후로방비 경계진을 강화할 필요를느끼고잇다 그래서 금춘부터만주국당국과 관동군의 힘으로대안의 토병토벌을 더강력으로하는동시에 조선측으로서는 우선대안의 이주조선인의 상태를밝히기위하야 조선내지와 왕래가자즌대안의 이주농민의 조사를자세히 하기로하고 그구체방법을연구중에잇다한다

今日午後淸涼里에서 京平對抗氷上競技

都市對抗은十六日에 {本社後援}

경성백구락부(京城白狗俱樂部)와평양 련광빙구구락부(平壤練光滑氷俱樂部)공동주최로 열리는 제륙회 경평대항 빙상전(京平對抗氷上戰)은 본사후원아래 금십사일 오후령시삼십분부터 청량리정(淸凉里町)링크에서 열리게되엿다 레변에보지못한 따뜻한기후로인하야 기일조차확정치못하든터이던데 경성과 평양의 량빙구구락부책임자들이 대항전개최에대하야심의중이든바 금십사일에 결행하기로 되엿다 이리하야 평양대표군은 작십삼일밤아홉시 오십분 경성역착렬차로 동구락부부장 방응근(方應根)씨인솔아래 입경하야대기중에잇다

지금까지의 전적은 량군이승패의동률인으로 이번대항전이야말로 비상한흥미를 이끌고잇는데 량군의출전멤버ー는다음과 갓다

◇兩軍의陣容

京城白狗軍=白承哲 白承旭 崔晟洙 金永珣 金用濟 鄭庚彦 金吉星 張福民 朴性用 金裕七

平壤光成軍=金顯泰 李仁源 全[illegible] 金正洙 金順南 金聖泰

그리고백구락부주최와본사후원의 제이회 전조선도시대항(都市對抗)전은 연긔하엿든이십이일보다 닥어서 오는십륙일 오후한시에 거행하기로 되엿는데 장소는 청량리링크의 빙질이 불량한때에는 경의선(京義線) 수색(水色)역 부근에잇는 은반우에서 행하기로되엿다 그런데 어는 지방에서 이미상경하야대기중인 각팀의편의를 도옵기위함이라한다

有坂醫師를召喚

死亡診斷書內幕取調

自殺한看護婦의遺書도發見

긔보=부내대도정(大島町)팔번지등본병원(藤本病院)에서의문의 자살을한그병원간호부 이목정자(二木靜子)(二)를자고도는 여러가지수수격기에대하여는 그추측이구구하게 전개되여잇는 모양인데 십삼일 오후세시경에 룡산서에서는 부내원정(元町)일정목에잇는 유판병원(有坂病院)의 의사유판신일랑(有坂新一郞)씨를 소환하여전긔간호부가 사망한후 진단서를써 주게된사실을 여러가지로캐고 취조하엿다 이로써 동사건의 금후전개는 가장주목중이라한다 그리고 이목정자(二木靜子)가 제사촌 누이동생으로 가튼 등본병원 분원에서 역시 간호부로 근무하는 산촌문자(山村綾子)(二)(假名)에게 우편으로 보낸 유서내용을보면 『새해를당하야 의지약한나로서는 세상에 사러가기가 시러저서 죽엄의길을가니 모든것을 부탁한다』는 의미의것이엿다한다

京城局從業員에게 南總督金一封贈與

남총독은 지난년말 바뿐때에 경성우편국의 현업사무를 자세히시찰하고 동국종사원을 격려한것은 그당시에 이미보도한바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편사무에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배하야 다과료(茶菓料)로 금일봉을증여하엿슴으로 경성우편국에서는소성국장(小城局長)이하국원들은 길이 감격하고잇다한다. 그리고 우다과료는 동국종사원사이에 오래동안 긔념이될만한 설비를하야 남총독의 후의를 감사하도록하라는 계획을세워잇다한다.

現場을再檢證後는 텅빈東大門署!

玉을眞犯이라고發表는안하나 物的證據는어든듯

루보=서둑성용전(涌田)로파참살진범인으로 옥건창(玉健昌)에게 자백을바든다음 물적증거를 수집하기에 전력중이든 소관동대문경찰서에서는 옥이범인이냐 아니냐하는 최후의 단정을내리고저 경찰부형사과와 검사국에 사실내용을 보고한후 야촌(野村)형사과장과 근등(近藤)검사와함께 편강(片岡)서장이하 평림사법주임등 계원전부가 피의자옥건창을 데리고 십삼일오후 네시 다시현장에 출동하야 피해자 용전로파의 집을중심으로 전긔 옥건창이가 그를때려죽이고 피신하엿다는 경로를 그이웃주민들도 보지못하게 엄중경계리에 약한시간동안 자세히검증한다음 옥건창의 의복일속까지 압수하여왓는데 소관동대문서에서는 아직 옥건창이가 진범인이라고 발표치는안하나 검증갓다온후 사법주임이하가 모두 자긔집으로 도라가고 또사건발생한이래 밤나즈로 물끌틋하든서내가 조용하여 진것으로보아 그가진범인인것이 틀림업다는최후의단정을내린듯이보인다

某專門校出身 西門署에檢束

부내서대문서 고등계에서는수일전 대현정(大峴町)방면에서 김건종(金健鍾)(二○)(假名)이라는 청년을 검거하여다가 비밀리에 취조를 계속하고잇는데 사건내용은 일체비밀에 부치고 잇서 아직 명확히 알수는업스나 전긔김은 일즉 시내모전문학교에 재학중 학생좌익운동에 관여한 일이잇고 그후 상해(上海)남경(南京)등지에서 군관학교(軍官學校)계통의인물과 접촉이잇섯다는점으로보아 취조에 따라서는 모종의중대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고한다

楊平에小火

【楊平】 지난 십일일오후아홉시반에 양평군갈산면양근리(楊平郡葛山面楊根里)오백삼십이번지 민백균(閔白均)의집 부엌에서 불이나서 초가집일곱간을 전소한후 가튼열두시에 불을집엇는데 손해는 약이백원가량이고원인은방금조사중이라한다

"アイウエオ"를배호며 大學二年級에通學

"모구리"大學生의取扱을바드면서 그래도成績은堂堂한優等生

朴勝彬氏

朴勝彬氏

일즉히 조선법조계의 중진으로오랫동안 활약한분 그다음에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교장의자리를 마타서우리 전문교육계에불소한 공적을세운분 최근에는 서재에파뭇처서 일생의사업인 조선어연구에 몰두하고잇는몸이라고만하면 누구던지 그이가 박승빈(朴勝彬)선생인것을 언뜻알아낼것이다 이선생의젊은시절은 어떠하엿스며 그학도시대에어떠한 자미잇는 이야기가 잇섯는가하는 호긔심을 잔뜩가진채 긔자는 어느날 오후시내 관훈정(寬勳町)선생의 서재를차저갓다 역시선생은 한결가티책상에머리를 부치고 조선어연구에골몰하고잇섯다 한마듸 두마듸선생의 청년학도시절의 회고담을듯기로하자

◇……◇

첫재박선생은 청년학도 시대라고버젓한 이름을 부칠만한그러한 호강스러운 학생시대를갓지못하엿다고한다 열아홉살되던때까지 선생의고향인 강원도철원(鐵原)에서 한문공부를 거진다마치고 한문으로된 수학책을 독학하엿던것이다 박선생이청운의큰뜻을품고 서울로 온것이십구세의 소년시대이엇다 처음뜻을세우기는 준비지식을 좀어더가지고는 긔필코서양 유학을하겟다는것으로 남모르게 견고한결심을한 것이엇다 이리하야그 『스타ー트』로서 이십세되든때에 판임관(判任官)채용시험을치러가지고 이에수석으로 합격하야외부(外部)에적을두고 관리노릇을 하면서 영어공부를 하기시작하엿다고한다 흥화학교(興化學校)야학부에도 다니고 중교의숙(中橋義塾)에도 다니면서 인호사변동안은 서양유학의 준비과정으로영어를 전심하야 배웟든것이다 그러저럭 선생이 이십오세가되든해에 일로(日露)전쟁이 나서 그야말로 정세가 급전직하로변하여버려서 여태껏 선생이 서양류학의 유일한 길목으로 생각하든 각국공사관이 전부폐지되고마니까 이에 서양류학의초지는 하는수업시 꺽거지고말게되엿다 여긔에 이르러서 선생도 그공부하는 방도에 일대전향을 하지안흘수업섯다 모든점을 기피생각한결과 초지를 애석하게도 포긔하야 버리고 동경류학의결심을 하게되엿다 동경을가자면 첫재 언어가통해야 될터인족 이십오세의 청년이그때에야 비로소『アイウエオ』를배호게 되엿든것이다 선생이 이십륙세되든해에 용감하게도 일본류학의 길을떠나서 동경(東京)에가서 우선 중앙대학(中央大學)교외생으로 강의록을 읽기 시작하엿는데 그저한문 글자만 주서읽어가면서 그내용을 리해하엿다고한다 그후 본과생이되고 이럭저럭 이학년이 되엿든데 동모들도 저사람이『アイウエオ』조차 모른든것이 얼마전의일인데 어느새 어떠케하여서대학 이학년이라고 사각모자를쓰고 다니는가고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적지안햇섯다 소위그때말로 『모구리』(潛水)대학생의 취급을 밧는긔미가 적지안햇든것이나 그실 그때선생의 붓이날듯한 공부가 진행되엇든것이다 남모르게 쉬지안코 대학생이『アイウエオ』공부를 하엿든것으로이 결과 대학이학년말에는 그무서운 선생의 뜻이달하여 령방스러운 우등성적을 내이게 되엿다 여지껏 선생을의심하던 동무들도 일본에류학하는 조선전문학생으로 최초의우등성적을내인 선생에게는 모두경탄을마지안햇던것이다 이로부터 선생의 전공과목인 법학에대한 조직적공부가 계속되엿는데 꾸준하게 조흔성적을 지속하여가서 졸업할때에도 제륙위의성적이엇다고한다 졸업성적은 조흔편이나마 우등까자를 하지못한 그리면에는 또 그럴듯한 한토막의 이야기가 숨어잇다 그것은 그때 선생의젊은긔질로써 또그때 그주위의 공기로해서도 선생이 비록 학창시절이라고해서 서책에만 구애되엿슬수가 업섯던것이다 대학이년때부터는 동경류학생회의 총무니 회장이니하는 중임을마타가지고 일을보게되여서 상당히분주한 활동을하엿스며 졸업하던해에는 소위단지류학생(斷指留學生)사건이발생하야 선생의 대활약을보게되엿던것이다 즉 어느날새벽한시경에 돌연히학우한명이 창황하게 선생을차저와서 학자를원조해주던 유력자가 탈이나서 이십여명의류학생이 학자가 끈허지게되엿든데 방금그학생들이 전부 류학생감독부에 모혀서 모두손가락을끈코 죽어도공부를계속하다가 죽자는 비장한맹세를하고잇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선생이 출동하야 어떠케든지 판명이 보이게해달라는것이엇다 똑가튼 학생의 신분인 선생으로는 별다른수가 업슴에 틀림업겟지만 하여튼 곳 현장에쪼차가보니 과연 그광경이눈물겨운것이엇섯다 그래서 우선학자라는대로 선생의엄친에게 전보로써 현금이백원을 청하여가지고 급한대로 노나서 쓰게하고 각자를격려하엿던것이다 일이이러케되고보니 류학생회에서는 드듸여 선생을 그단지류학생사건의고국보고 파견원으로 뽑기에 이르럿던것이엇다 아무리졸업시험이 림박한때일지라도 선생은서슴치안코 이일을 마타가지고경성에 돌아와서 한달이상동안이나 각신문사와 유력자들을 력방하야 그비장한광경을 보고하고, 구원의손을청하엿섯다 이러케 이일에 참섭을 하느라고 졸업성적이 여섯째에 떠러진것인데 그때선생의 심정은 첫재한것보다도 오히려 깃븜이엇이 잇섯슬것이다 선생의 학생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기풍이 지금편이엇스나 상상도 못하리만치 강한여학생이나 따라다니고 사치를하며 멋만부리고 다니는 학생이만헛다고한다 이러한 학생들을 맛날때마다 선생은 조곰도용서를 하지안햇다 소위 철권(鐵拳)강파의 선두에서서 늘입바른학생기풍의 연약화에 항거하여와썻던것이다 선생의 학생시대의 취미라고는 꼭한가지가 잇섯는데그것은 사격(射擊)이엇섯다고한다 이리하야 선생이 속하는경파(硬派)가 수는 적으면서도 언제던지 다수의 연파(軟派)학생들을 제승하야 잇섯고 나갓던것이다 그때기풍이 이러하엿거늘 하물며 그때는 일천삼백만원의 국채가 잇다고하야 전조선각지에서 경주단연운동이 맹렬히 일어낫던 때이니만치근검절소하자는 운동이 도도히일어낫섯던것이라한다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하던해에 만세교(萬歲橋)양복가게에서 칠원짜리 외투양벌을처음사입엇섯다고하며 목도리장갑이니 하는것은 한번도 대여본일도업섯다고한다 얼마나그때가 검소하엿슬것인가를 가히 짐작하고 남음이잇섯든지를 알수가잇다

사진은 중앙대학 재학시대의 박승빈씨

西京城을震撼시킨强盜犯과 假醫師의初公判

十八日과廿一日에暴露되는 硬軟兩面의犯罪相

오는십팔일과 이십일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리기로된 자미스러운 공판두가지ー 작년오월부터 한여름동안 부내서대문경찰서관내 홍지정(弘智町)자전을비롯하야 중국사람 채소장수집을 네곳이나 련거퍼들어가서 일시 서부경성의주민을 전전긍긍케한강도 강도사 주거침입절도등 피고사건관계자 부내옥인정(玉仁町)삼번지 전종식(全鍾植)(一)외 두명에관한 제일회공판은 오는십팔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증촌(增村)재판장중심미테 열리기로 되엿스며

▲학교도 다니지안흐면서 의학전문학교에다닌다고 거짓말하고 자긔부모를속히여 학비를타서쓰고 또의학생이라고 속히고 안해까지어든다음 자긔의거짓말을감추기위하야 자긔동무의일흠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졸업증서를위조하야 의사인체하고 환자를치료하고 도경성제대의학부연구생이라하야 대담히도 연구실에드나들며 그곳에잇는 의학서적을훔처다 팔어먹고 자긔안해에게는 연구실에간다고 가방을끼고 아침에 나가서 백화점 귀금속상 서점등으로 도리다니며 절도생활을 하야 루년 나머지나 가의사생활을 계속하야 여온 부내원서정(苑西町)칠십칠번지 최룡진(崔龍鎭)이라는최병규(崔炳圭)(一)에관한 공사문서위조행사 사긔절도 의사규칙위반 사건제일회 공판은 오는 이십일일 경성지방법원 제사호법정에서 증촌(增村)재판장 주심 김(金)검사관여미테 열기로되엿다

酒母飮毒

고양군지도면(高陽郡知道面)행주외리(幸州外里)에사는 주막영업자(酒幕營業) 리성룡(李聖龍)의처 한씨(韓氏)(ㅇ)는 십삼일오후여섯시쯤 다량의 양잿물을 먹고고민하는것을 동리사람두명이 부내 죽첨정(竹添町)삼정목 고려병원(高麗病院)까지 떠메고와서응급수당을 가하엿스나 현재모양으로는 생명을건지기 어려울것갓다고한다 서대문서에서는 방금 리성룡을 소환하는 한편 제소와 련락유치하야가며 한씨의음독한 원인을 조사하고잇는 중이라는데 이사건 리면에는매우복잡한 사정이 잠재하여잇는 것갓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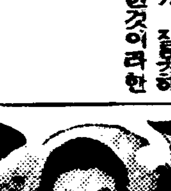
自起黃이터저서 重傷한사냥꾼

金海郡進永의惨事

십삼일오후여덟시 경남경찰부로부터 경무국에 도착된 보고를보면 경남김해군진영면내룡리(金海郡進永面內龍里) 김덕수(金德守)(三)는 십삼일 오전열한시쯤 자긔황(自起黃)이 터저서 중상을 당하엿는데 전치까지는 약일개월가량 걸릴모양이라한다 그는비밀히 산김성을 잡을목적으로 자긔황을 양복주머니에너코 다니며 예무튼 몬지를 떠르라고 주머니에서 수건을끄내다가 잘못하야 자긔황을 폭발식힌것이라한다

朝鮮軍奮戰惜敗 早大軍勝利

李仁源君萬米一着



得點은 46・5對40・5

朝鮮氷上競技聯盟主催의 早大對朝鮮選拔軍의 스피ー드・스케ー팅戰은 十二日午後零時부터 淸凉里町링크에서 열린바 昨報以後의 戰績은다음과가트며 이날 一萬米레ー스에는 氷盤이녹아서 極히不良한「컨듸슌」아래 始終아기자기한 接戰을 演하드니 李仁源君의「라스트・스파ー트」巧妙하게 李鍾德君을 제치고 가슴하나 差異로 一着을 차지하얏다 이리하야 最終으로 二千米릴레ー를 行할豫定이엿스나 코ー스關係로 千六百米릴레ー를行하야 朝鮮軍 앗가웁게 물러서니 結局四十六點五對四十點五로 早大軍이 勝利하엿다 遠來의 早大軍一行은 昨十三日午後七時四十分 京城驛發 安東縣으로向하엿다 (寫眞은李仁源君)

【萬米】(오픈코ー스) 1李仁源(朝)二一分四一秒九 2李鍾德(早)二一分四二秒[illegible] 3金 (略)

…(朝) 4南洞(早) 5尹明洙(朝) 6大田(早)

【得點】朝鮮軍十二點 早大軍九點

【千六百米릴레ー】(오픈코ー스同走) ▲1早大팀ー(中村、樋口、南洞、李鍾德)二分三四秒四 ▲2朝鮮팀ー(鄭庚彦、金永珣、李仁源、尹明洙)二分三四秒九

【得點】早大軍三點 朝鮮軍零點

◇總得點 ▲早大軍四六點五 朝鮮軍四○點五

早大하키連勝

早大對鐵道하키ー戰은 十三日午後二時三十分부터 淸凉里링크에서 佐伯氏審判아래열린바 結局六對一로 早大軍快勝하엿다

早大6(2-1、2-0、2-0)1鐵道

그리고 同午後四時부터 醫專과 早大對醫科하키戰은 佐伯氏審判아래열린바 二對零으로 早大軍連勝하엿다

早大2(1-0、1-0、0-0)0醫科

회충엔 오리가제일
촌충엔 도루사제일

치질엔 엥구루가제일

치질은 누구든지 흔히알는병인데 대단히괴로운고 더러운 병이라 심하면 …

해소 기침엔 에치세ー가제일

사람이 생명이잇슬동안에는 호흡을하 …

속병 체증엔 겡오ー가제일

사람의위장(胃腸)은 신체모든기관의원동력(原動力)이된다 위장이약하면 항상허약하고 만병의근본이된다고하여도 과언이아니다 …

약을써보시고 만일무효면 어더한책임이든지 집니다

京城西大門町停留場前側(五) (제일은뱃속양산)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番

博士創製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 無代進呈

후미나인

フミナイン價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送料內地十二錢、萬一品切時는 代金添付하여 發賣元에注文하라、卽時送藥함。

(全國藥店에잇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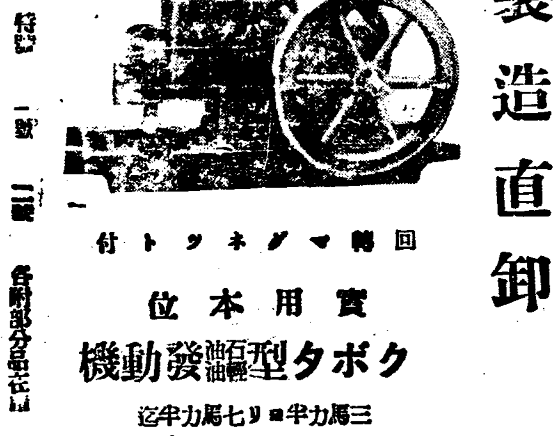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四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三二八三三 東京藥院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三五五六 振替大阪五○六八番 東京藥院

チドリ椿ポマード油

本舖 髙木大宝堂 大阪市東区淸堀町八 電話南六八五一番

最モ完全ナルハチヤ發動機

製造直卸



特大號 特號 一號 二號 各附屬部分品

回轉マグネツト付

實用本位 クボタ型石油輕油發動機

三馬力半ヨリ七馬力半迄

八谷式精米機

傳動具一式 機械工具一式

(型錄無料進呈)

製造直卸 特約店募集

朝鮮大邱府八雲町 八谷工場營業所

電話長一○四七番 振替京城一二○二七番

受信略號 タイキウ・ヤカイハチヤ

京城版

社會敎化放送 積極的으로實施

총독부학무국 사회교화과(社會敎化課)에서는 라디오를 통하여 교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주지하에 신년부터 수양, 부인, 상식의 세강좌를 제일방송과 제이방송에 각히두고 각히권위잇는전문가며 교화사업관계자를 위촉키위하야 사십일 방송국측과 타합회를한후 오는 이십일부터 매주세강좌를 련속적으로 개설키로하엿다 강사는 제일방송에 삼십명 제이방송에 이십이명이다

稅金逃避富豪群 子女入學에痛棒

地方에서 올라온無居住屆潛居者에 納稅證明添附要求

경성부학무과에서는 소화십이년도의 부내각 공립보통학교의 생도입학 수속에 대한 방침을 방금 연구중인데 시골서 세금흠은 기부금을 만히무는것을피하기위하야 서울로 이사와서사는재산가가 근년에 무척만흔터인데 그가운데에는 당당히일호주의 입籍으로 부청에거주게(居住屆)를하고서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부세(府稅)를물고사는사람도 잇스나 호주의명의로 문패를 부치지안코 거주계도하지안코 첨의 입籍으로나 흠은 어린아들의 입籍으로 문패를 거려 노코 살며 사는집도 이리저리 자조 옴겨서 교묘히 세금을 물지안코 지내는 재산가도 무척만흔 터이므로 비록 부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제를 부에서 설립한 학교에 입학시킴은 그저너흘 수업는 터이라한다

그래서 세금을 또바또바 친부민과 이와가튼 의무불리행한부민을 구분하야 입학지원자로 선발하여야할 형편이므로 일일히 납세증명(納稅證明)과 호적등본(戶籍謄本)을 첨부시켜야 판명할수 잇슬 형편이라한다

이와가티한다면 학무과의 처리로서는 어느정도까지 공정한 사무를 취급할수잇겟스나 세무과(稅務課)나 호적과(戶籍課)에서 그리지안하도 사무가 번잡하야 눈코를 뜰수업는 현상인데 입학철을 당하야 도저히수습할수업는 대혼잡을 이루게될 폐단이잇겟스므로 어떠케 하면 좀더 간편히취급할 도리가 잇슬가하야 온갓 지혜를 짜내고 잇는중인데 좌우간에 불원간에 결정을 보게 될터이라한다

中央卸賣市場 建築費四十萬圓

昭和十三年에起工豫定

경성중앙도매시장의 건설예산은 소화십이년도예산부터 세우게될터인데 건축비만으로도 약 사십만원가량될 모양이다 그기지로 정하여잇는 경성역 용산의 시탄시장의 옴겨갈장소가결정되기전에는 공사를 착수할수 업는 형편이므로 비록 예산은 소화십이년도의 예산으로 세우게 되다하드라도 실제공사착수는 소화십삼년봄쯤에나 하게되지안흘가 생각하고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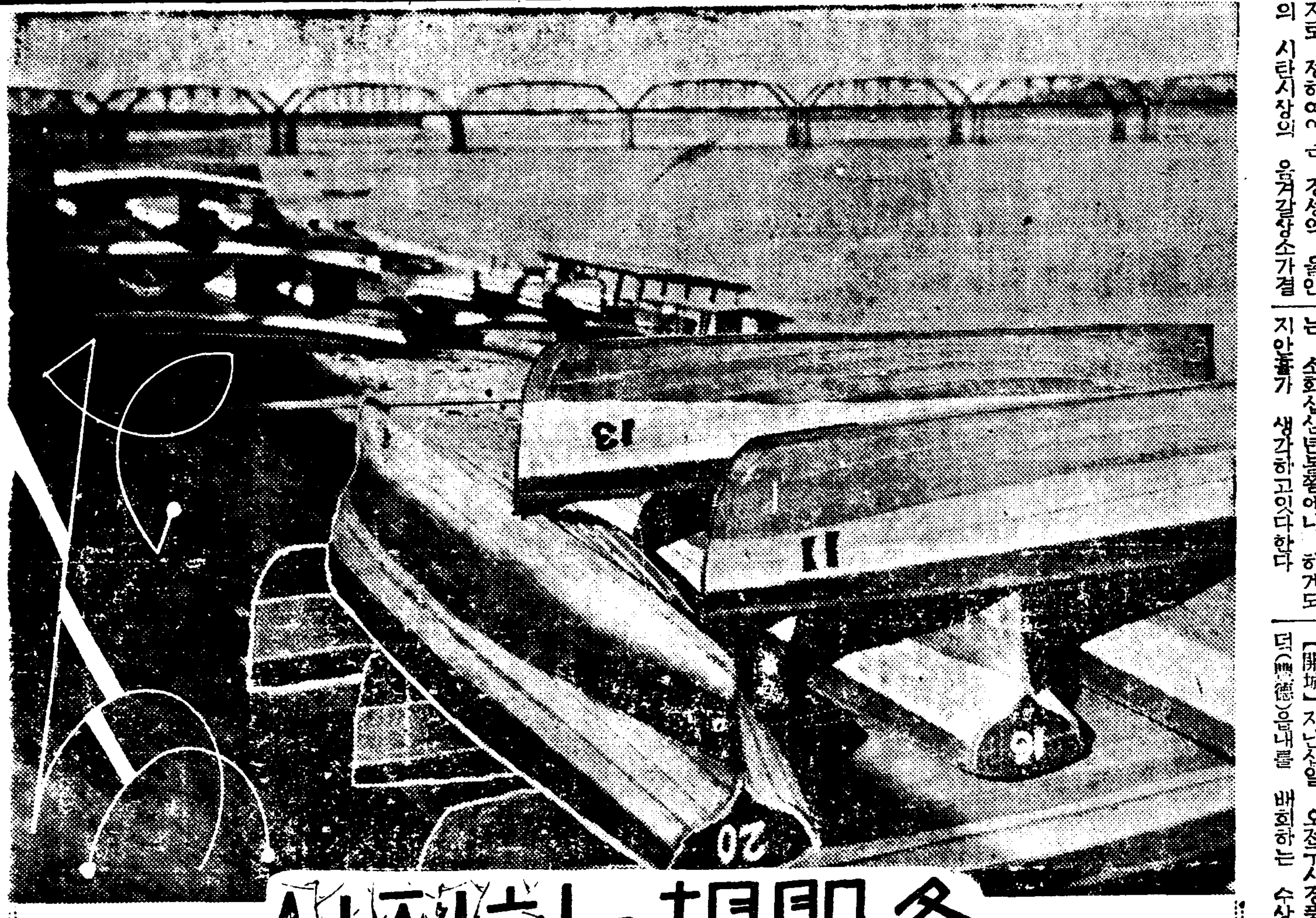
『산치기』大賭博團 開城署에被逮

【開城】지난십일 오전두시경 개덕(開德)읍내를 배회하는 수상

하야 대성면동리(大聖面□德里)일백구십륙번지김용해(金龍海)(三)상도면대동리(上道面大陵里)김은순(金銀淳)(三)대성면동리(大聖面□□里)일백구십팔번지 김대성(金大成)(三)등과한패가되여 동리김덕수(金德壽)방에서 『산치기』란 대도박장을 개설하야노코 일회일인이 특십전식 르는 놀음을하여온사실을 자백한바 전기일본자들까지 일망타진되여 방금계속취조중이라한다

府廳舍를增築

경성부에서는 총무(總務) 재무(財務) 공영(工營)등 삼부(部)제도를 실시한뒤로 청사가 더욱협착함을 느끼게되야 소화십이년도 예산으로 삼만원가량을 세워서 증축하기로 계획하고잇는데 그것은 현재의자동차고 사간자리에 이층을 지어서 현재 부영식당 이층과 삼층에 잇는 창고를 그리로옮기고 창고로 쓰든방을 사무실로리용하려는것이라한다 그리고 경성부 구역확장에 따라 호적과(戶籍課)의 사무실도 매우 협착하게 되엿스므로 그것도 장차 확장할 의향을 가지고잇다한다」



冬眼相을 차저서

쪽빗보다도더푸른 강줄기??기르보다도 더부드러워보이는 강바닥! 꿈보담도 더잘잘한물구뷔! 하루론부터 조심스럽게보내는 처녀의입김가티도 따뜻한 바람결을안고 『스마트』한뽀트우에 마주안즌젊은이들—꿈ᄭᅳᆺ갓다고보기는 너무도선명하고실경이라고보기는 너무도 그림가튼풍경—여긔를일러서 봄의 한강이라고 부른다.

그철에는 점은남녀들의 우슴이이곳에 다 몰렷고 그사나이와 그여자들 사이에 주고밧는정담이 이강바닥에어리웟것지마는 다른철이오자차디찬철교가괴물가티가로걸친 그아래론 부러터질듯한어름이 무겁게입을다물고잇는 강복판에 지난봄의 수만흔로만스를담은채 페인트빗도 새로운어엽브든뽀트들이 벼개를나란히베고 구슬프게누어잇슬뿐이다. 이잠을깨고나면 다시마츰봄물! 그날을기두리는 고적한이풍경이얼마나지리할터인가?

(사진은 한강뚝의뽀—트)

急變하는氣候와 脊髓膜炎流行

仁川署防疫에努力

【仁川】그동안온란한 일긔를이어별안간 령하십삼도의 죱한이 습래하자 가지각색의 류행병이 성행되고잇다 지난십이일 인천부빈정(仁川府濱町)이십팔번지소림팔중자(小林八重子)(三)가 류행성뇌척수막염(流行性腦脊髓膜炎)에걸리엇는것을 발견하고 방금도립병원격리병실에서 입원치료중이라는데 이병은 감기와흡사하야 전염되는조기에는 기침과 오한이나다가 이것이오래되면 전기뇌척수막염이 되고만다 이병은 별반생명에는 위험성이 업스나 한번걸리면 완치되는후가 어렵다한다 즉완치되드라도 백치즉령구리가 되고마는수가잇서 위험한병으로 물론 인천서 위생계에서도 각별히 방역에노력하겟거니와 일반가경에서도각자의위생에 노력하기를바란다한다

漢江天然氷의 採取解禁陳情

沿江勞働者의影響도莫大 當局은絶對禁止方針

해마다 겨울철이되면 한강의 천연빙(天然氷)을 떼여내여 이것을 저장하여두엇다가 일반 수요에 응하여오든것인데 작년오월경에 채빙업자들이 합동하야 조선제빙회사(朝鮮製氷會社)가설립된이후 경긔도 위생과에서는 위생적 견지에서 불결한 천연빙(天然氷)보다 깨끗한 인조빙(人造氷)을 쓰도록하기위하야 그인조빙을 전긔제빙회사에서 공급도록하고 따라서 금년겨울부터 한강천연빙은 일제히 그채집을 금지한다함은 작년본지에 긔보한바어니와 이결과여태까지 천연빙을 채집하던 합동회사에 참가치안흔 면면영업자는 큰타격을 바닷슬뿐더러 한강연안에 살면서 겨울한철채빙로동에 종사하야생계를 지탕하여가던 수백명의 로동자가 그버리를 일케되엿다 이리하야 십삼일시내봉래정(蓬萊町)삼정목령목소평치(鈴木小平治)라는채빙영업자가주민과함께 채빙금지 반대의진정서를작성하야 가지고 총독이하 관계당국에 제출하엿다 이진정문제에대하야 경긔도위생과장은 다음과가티말한다

글세 그런진정을 햇나봅니다 일반위생을 위하야 인조빙을쓰도록한것으로 천연빙은 금후도단연금지합니다 운운

新禱詐欺로 愚民의金錢詐取

【蘇萊】오륙년풍작으로 배를불리다가 갑작이금년에 흉년을당하야 농촌일반가정에서는 생활의위협을바더 정든고향을 떠나만주로 이주하는반면에 흉악한사기사에게 걸리여 금전을빼앗기고 우는사람이잇다 소래면대야리(蘇萊面大也里)김경선(金敬善)(假名)이라는사람은 생활도넉넉한터인데 그안해가 병이잇서의약을사용하되 좀시낫지안흠으로 우려중에잇슴을 기회로 자칭본적을 경성에두고 모교회신자라는 김승여라는 여자가 작년봄부터 왕래하며 천신에기도하면 병이낫는다고 감언니설로 꾀여 입교하면낫는다고 돈을사취하엿다는바 이와가튼 미신에빠저 인심이소동한다고하야 소관소래경찰에서는 이래업중이내사한결과 지난십일에 전긔장소에서 자칭모교신자라는 녀자를 호출하야 엄중이설유하야 돌려보냇다는데 일반가정에서는 이와가튼 미신에 속지말기를 바란다고한다

彦州面驛三里二區 青年禁酒團創立

基金으로五圓式捐出

【京畿】광주군언주면역삼리(廣州郡彦州面驛三里)이구(二區)에서금주단(禁酒團)을 창립한신춘에명랑한이야기—

작사일오후한시에 광주군언주면역삼리 (廣州郡彦州面驛三里) 공회당(公會堂)에 역삼리이구청년일동이모혀금주단을 창립하고 기본금으로 매인오원식 출연하야 전회원이십일인중 반수이상이 납입되엿다하며 위반하는자에게대하야는 규측(規則)에의하야 상당한처벌이 잇스리라고하며 요지음에 역삼리이구 음식점업자김모(金某)는 문을닷치기까지되엿다하며 회의역원은다음과갓다

▲會長, 沈相奇 ▲副會長沈相達 ▲會計沈相鉉 ▲同尹德奉 ▲幹事林萬福 ▲幹事鄭鎭山 ▲書記沈衡燮 ▲有司徐卜同 外十三人

家畜賣買 四萬二千餘頭

昨年中府營家畜市場에서

작년한해동안에 경성부영가축시장(家畜市場)에서 매매된 소는 삼만륙천구백오십사두(頭)로 그가격은 사백삼십삼만륙천십일원이며 말은 일백십구두로 그가격은 이만일천이백칠십이원이며 도야지는 오천팔백구십일두로 그가격은 십오만이천이백구십구원이나 그매매총가액은 사백오십륙만구천오백팔십사원이나되는 거액이엿다 재작년에 비하야 매매두수는 감소하엿스나 가액은 이십오만삼천일백구십구원이나 증가하엿는데 이것은갑시 전년보다 올라젓기때문이라한다

別宮터에스케이트링크 十三日부터盛大히開場

『스케트』열이 팽창됨에따라얼마전까지도리왕직별궁으로일반의출입을금지하든별궁터에새로히안국정 스케트장이 생기여 오전아홉시부터 오후열두시까지일반에게 저렴한료금으로 공개케되엿는데 링크의 면적은 사백여평이나 되게넓어 일반스케이터ー들의 갈채를 밧고잇다

(사진은 스케이트링크)

大阪天王寺のムシクダシ 円
회충구제약

好職業

堅實家庭工業
大阪市北區 大同商事

男女 淋疾 麥茸五淋錠

恩給 最大限期分立替 取扱의迅速과 用은緊會의特色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癩病

고초가루 千都 全千壽商店製粉部

기침에 コデチン

營業科目 米 雜穀 肥料 砂糖 麥粉 雜貨 ...
本店
東洋貿易商會 仁川府本町二丁目
販賣部 仁川府內里二〇五

肺炎 流感에 濕布에 エキホス
모든 發熱性과疼痛性疾患例하면 流感肺炎, 肋(膜)膜炎, 肺尖가다루로이마치스, 神經痛, 腰痛, 肩凝痛, 關節炎, 火傷, 齒痛等에應用하면手苦를 쯧치안는用法, 簡單하고 一回의塗布로長時間効力을持續한다.
注意 近時類似品이多數잇스니購入時에반드시「에기호스」라고指名하시요
包裝 一〇〇瓦 二五〇瓦 五〇〇瓦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株式會社 塩野義商店
製造元 二巴合名會社 大阪市東區道修町
EXIHOS A—23

かぜねつにキメ確かな アンチピリン丸

多福多福하십시오
美味 滋養 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올에도每日赤玉ポートワイン을먹어서 누구나다가티 健康한身體를 만드십시다—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朝鮮日報 江華支局 電話三十一番

產業

民有林四十万町步 農業耕地로解放
農林局에서調査計畫
人口增加로一人當의耕地縮少

朝鮮서는 每年 約四十萬의 人口가 自然增加되어 이에따라서 農村一人當 耕地面積이 縮少되고 잇는바 總督府農林局에서는 그根本的 對策의 하나로 昭和十二年度부터 十個年計畫으로 今 朝鮮民有林 一千萬町步에서 約四十萬町步의 農業耕地를 開拓하기로되엇다 이에備코저 農林局에서는 昭和十二年에 豫算八萬六千圓을 計上하야 技手二十名, 測量手二十名, 園工二十名屬員二十名計八十名을 新規採用하야 民有林利用區分調査隊를 編成하고 이를二十班으로 分하야 調査隊는 來四月부터 各道의民有林野의 現在 伐採를 嚴禁하고잇는 森林中에서 治山治水上影響이업는 部分을調査하야 農耕地로 指定하기로되엿다

百萬圓補助 漁船을改良
重油免稅撤廢對策

總督府에서는漁業用重油의 免稅制撤廢에伴하야 明年度부터補助金을 交附하야 漁船을 改造하기로 되엇는데 十個年間에 百萬圓의 補助金을 交附하야 大型漁船四百三隻을 디젤船으로 改造하기로되엿다

全北朝鮮紙 對滿輸出
販路開拓計畫

【全州】全北의 唯一한 特產品中 年百萬餘圓의 產額을 가지고잇는 全州朝鮮紙는 客年中品質의 向上을 目的으로 道產業課가 先頭에나서서 共同組合을組織하고는 規格의 統制와 檢査規則의制定 特產品으로까지 指定한후 生產能率이 增加하는同時에 品質向上도 良好한成績을示하고잇는中此에 對한 一手販賣權을 朝鮮紙業株式會社에주고 道間數千萬圓의 賣買高를 내이고잇는데 今年부터는 同朝鮮紙業株式會社에서는 朝鮮紙使用의 特殊한價值으로서 各方面으로需用되고잇는 滿洲方面을 中心으로 新販路開拓을 始作하리라는데 目下 滿洲等地에잇는 大會社와도 連絡을 取하는中이라는바 今年부터로 全北의 特產朝鮮紙가 滿洲地方으로 進出하리라期待되고잇다

今年에實現하는 朝郵大商船隊
各船의進水狀況

朝鮮郵船의 新銳商船隊라고한 新船六隻 建造計畫은 昨年浦賀, 橫濱, 播磨, 等의 各造船에各其注文을 發하야 以來 順調로建造工程이 進行되고잇는바 昨年十二月二十七日 大興丸(四、一〇〇噸)이 進水한것을 비롯하야今年十一月 定州丸(四、一〇〇噸)이 進水하는것을 끝으로 全部 竣工이 實現되게되엇다 新造船의總噸數는 二萬五千三百噸에 達하는데 注文의總額數 船價는 朝郵로는 三割가량의 利益을엇게되엇다하며 各新船의 進水狀況은如左하다

大興丸(四、一〇〇)前年十二月
金泉丸(四、八〇〇)三月上旬
興東丸(四、一〇〇)四月下旬
安州丸(四、一〇〇)八月
興西丸(四、一〇〇)八月
定州丸(四、一〇〇)十一月

躍進木浦港貿易
五千萬圓臺를遂突破
空前의新記錄을示現

【木浦】木浦稅關의 調査에依하면 지난十一年中의 木浦의 貿易總計는 輸出 三十二萬三千七百四十一圓, 移出 三千百四十一萬三千二百十五圓, 輸移出合計三千百七十三萬六千九百五十六圓이요 輸入六十九萬七千六百五圓, 移入 千八百三十四萬四千三十九圓, 輸移入計 千九百四萬一千六百四十四圓으로 輸移出入合計가 五千七十七萬八千六百二十圓이다 이를 昭和十年度에比하면 實로 六百二十二萬七千九百二十六圓의 激增을 본바이는 躍進途上의 木浦狀況을 如實히 證左하는것이다

木浦港貿易過去의 趨勢를 보면 大正七年度에 비로소 一千萬圓臺에 올라 爾來躍進에 躍進을 거듭하야 大正十四年부터 昭和四年까지는 三千二三百萬圓을 上下하는 好調를 示하고잇는바 昭和四年에는 實로 三千七百萬圓이라는新記錄을 作成하엿다 그리하든것이 翌昭和五年度에는 物價의低落及鐵道의 運賃換度割引等으로因하야 突然二千萬圓臺에 低下하고 昭和六年에는 더욱 不況을 示하든것이 다시 九, 十兩年에 이르러 農產物의 好況과諸事業의 復興으로三千萬圓臺를 復舊하여 昭和十年度가든해에는 四千四百五十萬圓이라는 開港以來의 初記錄을 보이드니 昨十一年엔는 棉花의 增產과 麗水線이 國鐵에 買收된後 運賃의 合理化 等에依하야 又復新記錄을 지어 一躍五千萬圓臺를 突破하엿다 이로木浦港이如何히 躍進하고잇는가를알것인데過去十數年間의 貿易趨勢를 數字로보면 다음과갓다 (單位千圓)

▲木浦港의米穀出光景▼

	輸移出	輸移入	合計
大正十二年	一五、五五〇	一五、七七六	三一、三二七
十三年	二〇、三五五	八、七三六	二九、〇九一
十四年	二〇、六九六	一二、八九六	三三、五九二
昭和元年	二三、七九九	一三、五一九	三六、二六八
二年	二一、一三二	一一、一三一	三二、二六五
三年	二二、六九二	一一、〇四六	三三、七三八
四年	二二、八七二	一四、二二六	三七、〇九九
五年	一七、四五三	一二、八八八	二九、三四一
六年	一五、四四七	七、五九四	二三、〇四一
七年	一六、五五八	八、三四八	二四、九〇六
八年	一八、四四三	一〇、〇四六	二八、五一九
九年	二二、五五二	一一、九六二	三四、一九四
十年	二九、〇一一	一五、四四八	四四、五五〇
十一年	三一、七三六	一九、〇四二	五〇、七七八

宜川棉花共販好績

【宜川】宜川郡農會의 棉花共同販賣는 지난十一月初旬까지로서 共販取扱斤數는 二萬九千六百斤으로 平北道第二位의 成績을나타내고 잇는바第一位地인 定州와의差 겨우十斤으로 二位에 떨어진셈이다 이를 栽培面積으로 보면 겨우五百町步로서 將來의成績을 樂觀하고 잇다는데 同會의 取扱棉花는 道의 指示로 全部 朝鮮紡織會社에 넘기엇다고한다

中小商工業對策
● 救濟보다振興에置重

中小商工業對策의目標

近代資本主義는 그發達過程에잇서 여러가지問題를 生하얏는데 國民經濟上으로 가장 注目되고잇는것은 農村의疲弊 及中小商工業者의 窮乏이라는 것이다

此中 農村問題는 相當히 以前부터 그救濟나 更生이 唱導되고 研究되어왓스나 中小商工業問題는 何故이지 等閑視되어온 傾向이잇다 그는 如何한緣因에 因하는가하면 畢竟 中小商工業者의 窮乏이라는것이 저ㅡ農村의 疲弊가 凶作或은 災害에 依함과如히 突發的도는 顯著히 나타나는것이 아니고 徐徐히 나타나기때문인듯하다。

그러나 最近의 世界的不況으로 農村에도 及하야 日本에도 어 혼자安逸히 지낼수업게되어 中小商工業者의 窮乏은 加速度的으로 深刻化하게 되엇다 勿論이에는 巨大資本을 擁하는百貨店의 發達과 農村更生策으로政府의 奬勵를 바든產業組合의進出이 拍車를 加하얏슴은 말할것도 업슬것이다。

이에잇서 비로서 中小商工業問題가 世間의 注目을 集中하야 農村問題와 아울러 社會問題化되게되엇는데 此中小商工業問題의 實質에서 全部的救濟라기보다는自力更生을 目標로振興을 圖함이 中心이되어잇는것이다

即 中小商工業者의 大部分은 窮乏하얏다고는 하나아직 沒落過程에 잇슴에 不過하야 아직 多少의 餘力이 남어잇다고보는者가 만흠으로 此際 適當한振興策만 講究하면 充分히 自力으로更生할수 잇다고 보이기때문으로 今日政府가 行하고잇는 中小商工業對策은 모다 이方面으로 되고잇다할수잇다

現在行하고잇는振興策

政府 即主管省인 商工省當局이 現在採用하고 又는 採用하려하고잇는 中小商工業對策은全部的 救濟라기보다 振興에中心目標를 두고잇다는데 그러면그內容은 어떠한가 함에對하야以下多少 說明하야보자

爲先 順序로 現在採用되고잇는 中小商工業振興策에 對하야보면 이는 大體다음三種으로分類할수잇다。그第一은「商工業組合運動」이라는것이다。即 이商工組合運動의 目的으로하는바는 個個의 農村에잇서서의 產業組合의 境遇와 同樣으로 個個로는到底히 對等히 競爭할수업는大資本組織의것에 對하야 組合이라는 組織의 힘으로 對抗하야 가자는것이다。換言하면 個個따로따로는 單只 大資本組織에對抗할수업슬뿐만아니라 中小業者相互間의競爭도잇서서 窮乏은益益甚하야 질것임으로 爲先 組合에依하야相互間의 競爭을 避하는同時에 共存共榮의 精神에基하야 必要한境遇에는統制도하고 또 共同의 利益增進을 圖하기爲하야 共同販賣라든가 그他 權利의 共同仕入이라든가 根本의 目的 施設을한다는것이 이다。이를 爲하야 商工省에서 極力 中小業者의 團結組織化를 奬勵하고잇는데 今日까지는 大體 順調로운 經過로 發達하고잇서 모다 相當한 效果를 示하고잇는듯하다。

振興策의 第二는「業者의 指導機關」이라는것이다。이는 大體 商工業組合設立運動과 目的의 一로 되어잇는데 中小商工業者窮乏의 最大原因은 經營 或은 生產等이 不合理함에 依함이 만흐므로 그改善發達을 圖하기爲하야 指導하자는것이다。이를 爲하야 當局으로서는 本省에 指導官을 置하는 同時에 各地方에 商工會議所 各組合에도 指導機關을 設케하야 中央、地方이 서로 呼應하야 目的達成을 圖하고잇는데 이도또한 豫期以上의 效果를 擧하야 面目을 一新한것도잇다。(未完)

爪哇糖輸出價 大幅으로引上

【스라바야十二日發商通】十一月十二日午前의 一回에 亘하야各向爪哇糖輸出價格을 十五仙引上하얏는데 同日夕刻에 至하야 更히 各地向共히 二十仙의 輪出價格引上을 實施하얏다 이引上의 結果十一日 十二日의 兩日間으로 爪哇糖의 輸出價格은 一躍五十仙引上이되엇다

忠北養魚奬勵
鯉卵三十萬粒 今年도配給養殖
去年의試驗成績良好

【淸州】忠北道產業課에서는 昨年에鯉卵二十萬粒을 道內水利組合에 配付하야 養魚하여왓는데 그成績이 極히 良好하야 積極的으로 奬勵할 작정으로 今年도 釜山水產試驗場으로부터 鯉卵三十萬粒을 가저다가 道內各水利組合과 希望者에게 配付할計畫이라한다

北青園藝講習會

【北青】咸南北青果樹組合에서는 北青郡農會의 後援下에 園藝講習會를 오는 二十二日부터 二十四日까지 三日間 開催한다는데 場所는 北青公立普通學校요 講師는 元山學農園主 尹貫璣氏라는데 組合員의 聽講은 勿論이어니와 其他有志의申込을 歡迎한다고한다

準戰時體制下의 事業大會社解剖 ④

日本電力

	舊株	新株
拂込	五〇圓	一二圓五
時價	三圓二〇	一二圓二
前期配當	七分	七分
後期配當	七分	七分
利廻	七分一厘	七分二厘

五大電力中國營의 成否如何는特히 大同電力과 境遇와同樣으로 當社에서도 現下의最大關心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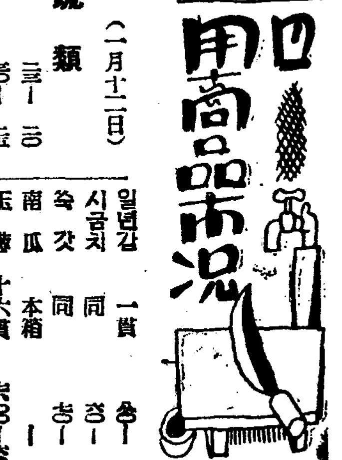
元來 當社는 宇治川電力의 姉妹會社로 創立된 當初부터 北陸地方의 豐富한 水力開發을使命으로한 發送電專業會社이며現在에잇서서도그後合併等으로 電燈電力의 小賣事業을加하엿다고는하나 依然 都賣事業에 大部分을 占하고잇다。따라서 發送電의 國營이 實施된다고하면 그財產上의 問題는 別問題라하더라도 電氣會社로서의 興味는 顯著히減殺될것이라고한다。即 그때에當社事業의 根幹은 政府事業에 提供할수밧게업시되어거의證券會社의程度의色彩밧게가지지 못하게 될것임으로서다。

그러나 以上 發送電의 國營問題가 今後 果然 如何한方向으로 나아가고 또如何히落着될는지는 全혀 豫測할수업는問題이다。同業에 對한 反對氣勢가 相當히 擡頭하엿스나 이가 一時는 出遲된 感도 不無하엿스나 이것은 決코 有耶無耶에 終熄된것이 아니오、政府方面이나 民間方面이나 國策으로 採用되는以上 議會의 推移를 보지안코면 무엇이라고 할수업는데서 休戰狀態가 되엇스나 議會의休會도 거의 끗나고 마츰내 再開도 멀지안흐엿스므로 反對論은 다시 熾烈을 極하게되고 잇는데 이로써 反對論도 드되어 本格的이 되어가고 잇는것은 注目할 일이다。이런意味에서는 當社의前途를 꼭悲觀해버리는것은 全혀 早計라고도 할수잇다할것이다

그나마 如上의 國營이 實現되더라도 當社는 營業方面에 잇서서는 前途의 妙味를相當히 減殺한다고는하나 出資評價等 財產上의 點에잇서서는 決코 打擊을 바드리라고 생각되지 안는다고한다。即 當社의 資產內容은 오히려 相當히 充實하여잇서서、그評價는 前期末에 잇서서水力一키로約 四百三十圓 火力百五十圓으로 各各 比較的低 設時期의 새로운 發電所인 以上 評價에 際하야서는 相當한 考慮를 加할必要가 잇슬것이라고 한다。그리고 過般 黑部川第二發電所 五萬五千二百키로가 完成되어 水力發電所의 平均키로 當評價는 四百圓臺를 割하야 三百圓臺를 示하게 되엇다。傳하는바와가티 政府가 國營實現을 爲해서는 그評價에잇서서 大讓步를하고 平均키로當 水力四百三十圓가량까지 讓步할意向이라는 것을 信憑한다면 當社의 水力發電所에는 도로혀 評價益이 期待되는 터이라고한다。假令 그評價益을二割이라고하면 發送電會社의配當이 六分이라고 하더라도 實際로는 當社의 現行七分配當以上에 當하는 셈으로 이러케보면 國營問題도 當社의株主에 對해서는 何等 그成否를 財產上으로 念慮할 必要는 업스리라고한다。그런데 一朝 國營問題가 流產이라도된다면 最近 電力需用의 增加와 他方鐵釣水力의完成으로 一躍 水力電源의 擴充을 보게되면 當社의 收益力은 一層增進을 보게될터이며 今後相當히 큰 增稅가잇다하더라도 現行七分配當에는 아직 一分程度의增配餘力이잇다고 할수잇다。即 前期의 計上利益金 九百七十六萬六千圓에 對한 利益率은 一割三分三厘餘에 達하야 石炭暴의平均 準備積立金 四十八萬九千圓을 利益에 還元하면 그利益率은 一割四分에 達하야 七分配當의 利益處分은 餘裕綽綽한것으로 아직 一分쯤의 增配餘地는 充分히 잇는셈이라고한다。

以上과가티 國營의 成否何를 不拘코 當社株는 너무도 不當히 悲觀되고잇서다고할수잇는터로 오히려 이러한 時期야말로 當社株에의 投資好機로보인다는 說도 잇는것이다。

商況



京城 (一月十二日)

◇菜蔬類

곳구마	一貫	一、三〇—一、三〇
토란	同	一、〇〇—一、五〇
馬鈴薯白	同	一、二〇—一、八〇
人蔘	同	一、二〇—一、八〇
蓮根	同	一、五〇—一、八〇
生薑大	同	一、三〇—一、八〇
同小	同	一、二〇—一、五〇
수박	同	— —
胡瓜	百個	— —
茄子	同	一、〇〇—一、五〇

◇果實類

일년감	一貫	六〇—一五
시금치	同	六〇—八〇
갓	同	六〇—八〇
南瓜	本箱	七〇—八〇
玉葱	十六貫	七、〇〇—八、五〇
青葱	一貫	四〇—五〇
미나리	一把	— —
마늘	百個	六〇—八〇
苹果 紅玉	四貫	— —
同 倭錦	同	— —
同 祝	同	— —
梨 二十世紀	三貫五	— —
同 博多	三貫五	— —
同 北海	同	— —
蜜柑	同	— —
바나나	一貫	— —
栗	一斗	四、五〇—二、五〇
잣	一石	三〇、〇〇—三〇、〇〇
실백	一斗	五、〇〇—三、〇〇
胡桃	一石	四〇、〇〇—三六、〇〇
銀杏	一斗	四、五〇—二、五〇
고추	百斤	三〇、〇〇—二〇、〇〇
고추가루	同	四〇、〇〇—三五、〇〇
실고추	同	五〇、〇〇—三五、〇〇
大棗	百斤	二〇、〇〇—
乾蓮根	一斗	一、〇〇—九〇
生落花生	百斤	一二、〇〇—九、五〇

◇家畜飼料

鰯乾粕	十貫	—三、五〇
成鷄用飼料	五斗	—二、五〇
育雛用	同	—四、五〇
中雛用	同	—四、五〇
幼雛用粉	二十五斤	—一、五〇
麩	百斤	—三、八〇
玉蜀黍粉	九十斤	—六、〇〇
同 中割	同	—六、〇〇
同 粉	同	—六、一〇
高粱粉	同	—七、六〇
魚粉 〆粕	十貫	—四、五〇
糠	八五斤	—一、七〇
穀殼	百二十斤	—一、〇〇

◇養鷄用鐵網

四尺幅	二寸目百斤	—一、五〇
同	一寸半同	—二、〇〇
同	一寸目同	—二、五〇
三尺幅	二寸目同	—一、二〇
同	一寸半同	—一、四〇
同	一寸目同	—一、七〇
同	五分目同	—一、七〇

◇毛皮類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匁	—一〇錢〇厘
同 三吋以上	同	—七錢一厘
同 二吋半以上	同	—六錢〇厘
同 二吋以上	同	—五錢〇厘
同 一吋半以上	同	—三錢五厘
同 桃毛	同	四錢五厘—三錢〇厘
펠트	同	—三錢五厘

◇川魚類

잉어	一貫	三、〇〇—一、二〇
붕어	同	一、五〇—八〇

◇家畜類

미꾸리	同	一、五〇—一、五〇
뱀장아	同	一、〇〇—一、五〇
메기	同	—七〇
가물치	同	一、五〇—一、〇〇
자라	同	八、〇〇—三、五〇
蜆貝	一升	一五—一〇
鷄卵	百個	三、五〇—二、〇〇
同	一貫	二、五〇—二、五〇
生鷄	同	二、八〇—二、五〇
生豚	同	一、四〇—一、二〇
生兎	同	一、二〇—一、七〇
四季鳥卵	百個	二、八〇—二、五〇
鶩卵	同	二、〇〇—二、五〇
蜂蜜	一罐	一六、〇〇—一二、〇〇

◇其他副業品

麥稈眞田	一反	一九—二〇
經木眞田	同	四—三六
杞柳	一貫	六—四
蓆	同	二、〇〇—一、二〇
漆	同	一〇、〇〇—一五、〇〇
胡麻油	一罐	一三、〇〇—一二、七〇

【朝鮮副業協會調查】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六二九	高嶺土 鑛石	慶南密陽郡密陽邑 府北面上東面	昭和十一年十二月十四日	密陽郡密陽邑 橋本德太郎 東京市小石川區 齊藤吉十郎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八一五〇	平北龜城郡館西面	昭和十一年十二月十四日	共同鑛業權者木內龜作의持分에對하야京城府錦町金鍾晳에게移轉함
一一九一	京畿驪州郡北內面 楊平郡砥堤面	同十一年十二月十六日	釜山府本町 迫間武雄
一〇九八六	慶北盈德郡達山面	同十一年十二月十六日	盈德郡達山面代表者崔基浩 扶安郡扶寧面 辛泳殷
一〇八八一	忠南洪城郡洪北面 禮山郡膺峰面	昭和十一年十二月七日	扶安郡扶寧面 辛泳殷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〇二九	黃海遂安郡泉谷面 谷山郡西村面	昭和十一年十二月十六日	廢業
一二五四一	平南成川郡大邱面	同	同
一〇四〇二	忠南公州郡寺谷面 新下面	同十一年十二月十七日	廢業
一〇八七六	全北任實郡雲岩面 青雄面	同	
一〇二四六	平南寧遠郡德化面	同	
一一〇二八	全南長城郡東化面 黃龍面	同 二十四日	取消但競賣의目的의範圍內에서存續함
一二〇二三	全南順天郡順天邑	昭和十一年十二月二十四日	取消
九四〇〇	平南龍岡郡新寧面	同	同
九七六九	平南成川郡三德面	同	同
一〇八六六	平南陽德郡吳江面 雙鶴面	同	同
九五六六	江原原州郡富論面	同	同
一一三六二	忠北永同郡揚江面	昭和十一年十二月十四日	廢業
一〇六六一	平北泰川郡西城面	同	同
九三五八	咸南永興郡德面	同	同
九三五九	同 橫川面	同	同
九六三三一	江原淮陽郡安豐面	同	同
一一〇七四	京畿道廣州郡中部面、慶安面	昭和十一年十二月十五日	同
九七六六	咸南定平郡文山面	同	同
一三四九四	京畿金浦郡高村面	昭和十一年十二月十六日	同
一〇三九〇	江原寧越郡永周面 橫城郡井谷面	同	同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三七四八	平南寧遠郡新城面	昭和十一年十一月十七日	韓學敎任意脫退
一三七四八	平南寧遠郡新城面	昭和十一年十二月十七日	李裕七任意脫退

雙虹舞 【86】

方仁根 作
金奎澤 畫

숙 욕(三)

경주는 태식과 결혼한뒤로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부자집며누리감으로 보여다。학교선생도 그만두고 들어안저 트레머리 플운치마도 내던지고 쪽을 찌고 긴치마를 줄줄끌며 구가대청을 다니며 하인들을 부리는것이그 얼벙하엿다。혼인나이가 자칫하면 넘어서 애를쓰든 그가 남편을 만나니 모든것이 흐뭇하엿다。더구나 부자집에 들어와 살림도 풍성풍성하고 재미가오십오실 께쏘다지듯하엿다。고향에서 농사하며 가난에 쪼들리든 부모도 다려다가 농사도 땅작으로 하게하고 사위덕에 거드러거리고 살게되엇다。

경주는 태식을 몰어쏫고 십도록 사랑하엿다。사랑이라는것보다 혹하고 성욕적으로 반한것이다。그들이 피차 리해잇는 사랑으로 혼인한것이아니오 경주는 광호에게 실련을 당한셈이오 태식은 명월이나 은명에게 배척을 바든 똑가튼 경우에 잇는고로 분김에 화김에 혼인해 버린것이다。물론 경주나 태식은 처음에 서로 그런생각은 염두에도 업섯는데 중간에서 활동하든 윤호나 민준이 일이 모다와해가되니 미안도하고 서운하기도하고 또 손해도되는고로 그들이 이묘안을꾸며내어 태식과 경주를 맛붓처준것이다。붓처노코보니 한쌍부부로 남부끄럽지안케되고 피차에만족하는것이엇다。경주는 태식이혼인한뒤에자조술을먹고 외입을할때 경주는 울면서 싸우기도하고 들러부터 아양을부리고달래보기도 하엿스나 태식은

『내가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밥이요 기생은 과자쯤되니까 어듸사람이 밥만밥낫먹고살수잇소 나가서 과자나차나 과일도 먹는것이아니오』하고 천연스럽게대답하엿다。

『그럼여자가 그러케해도 괜찬아요』하고경주가 물으면

『남자와여자가 그게다른다는게지ㅡ여자는 그러케되면 이혼당할것은 정한리치지』하고대답하엿다。

『그런불공평하고 완고한말이어대잇서요』

『흥 그것이 몃만년나려온 습관이오 도덕인데ㅡ그것이 맘에 안마즈면 혼인을아니해야올치』

경주는 기가딱막히여 정말혼인한것을 후회하엿스나 이만한남자에게라도 부려서 사는것이 영리한처세라고생각하여 모든것을단념하고 나니 그담에는 남편이 술을먹고 외입하여도 파히홀몸이되지아니하엿다。

잘먹고 잘입고 그리고 남편이 자조사랑해주고 이만하면 살림자라고 생각하엿다。어서 아들이나 하나나서 이집장자가되고 재산전부를 차지하는권리를 가지게되면 더할나위업다고 공상까지하엿다。

저녁을먹으려 태식이드러왓다 경주는 건는방으로가서 남편의 아메안즈며

『또 약주 잡쉇구려』하고 무렷다。

『응 악게 윤호가 와서 좀먹엇서』

『참 그일은 어떠케되엿수』

『다 우리생각대로 되는모양이야 윤호가 문서와 은명의도장 찍은 차용증서를 가저오면 주기로햇서』

『그럼 그집 그러가 우리해가 되겟지』

『암 장차우리것이되지』

『아이 조화라 고소해라』

『그래도 아직 아무보구도 말마라요 우리가 그러는줄알면그집에서는 돈을 아니쓸테니까』

『아이그 내가 철딱선이 업는 아이인줄아서요』

『하여튼 그가매를 늘 욕심내든것인데 잘되엿소 그리고 그은명이나 광호이가 젠체하고야단하든것을 꺽게되니 여간상쾌한게 아니네ㅡ저이도 서롱을좀좀줄이 바더야싸지』하고 태식은 담배를 맛잇게 푹푹빨엇다。

『참말 그래요 아이 제일에고 은명이가 얄밉더니 잘되엇지ㅡ 인제야 저도 좀이 죽겟지』하고 경주도 신이나서말하엿다。

『좌우간 그러케되면 우리가 그집으로 가서 살시다。늘 석어머니 석아버지 미레서 살기가 어려울텐니ㅡ당신만 조케되엇소』

『뭘 당신도 조치……참말그집이 봄이되면 여간경치가 존게 아니에요 이촌에서는 일등이에요』

『일등이고말고ㅡ굼을 줘도사기 어려운데지』

『그걸 고 맥힌 은명이가 모르든 모양이죠』

『아나 모르나 지금판세에 어쩌는수가 잇나 장려비가 잇나 당장먹고 살게잇나 두수할자업게되엇지』

『흥 그러기에 세상일이란 알수업서요』

태식이 저녁상을 바드려고하는데 사랑에 손님이 왓다고 한다。태식은 벌떡이러나 사랑으로 나갓다。경주는 국과 찌개그릇을 화로에 올려노앗다。

原州

江原道原州郡原州面 面職員一同

京原 內陸 東線 自動車文幕停留所 主 全羲鍾

江原道原州郡地正面文幕里 三鶴酒 艮峴酒造場 主 韓昌東

茯橋

寶城郡茯橋面尺嶺里 朴鍾萬

寶城郡茯橋面長佐里 朴文俠

寶城郡茯橋面尺嶺里 高天受

寶城郡茯橋面尺嶺里 高天得

順天郡樂安面下松里 具致馨

高興郡東江面油屯里 徐家小作組合 組合長 徐采淳

順天郡樂安面下松里 金相彥

全南茯橋浦 順天醫院 醫師 金龍植

茯橋司法書士聯合事務所 北村淺次郎 好本保 徐三殷 梁會早 橫田 具

寶成郡茯橋 村上正二

全南茯橋浦 半島トラック運送株式會社

茯橋郵便所長 中本兵淸衛

茯橋面興洞里 尹得洙

茯橋面長佐里 文福洙

石岩

京義線石岩驛前 代行營業所 代表者 落合鶴一

京義線石岩驛前 黃仁杰商店

京義線石岩驛前 (二)運送店 主 黃學洙

永盛理髮館 主 朴萬協

慈城鑛山 德太 李允洙

慈城鑛山 德太 郭夢星

李啟銘

慈城麵屋 主 丁丙杰

辰興商店 主 安璟鉉

吉興商店 主 韓吉源

郵電里 全聖天

金成商店 主 金成植

金利商店 主 金寬植

京義線石岩驛前 自轉車金物各種 三成自轉車商會 印章彫刻 金哲璟

京義線石岩驛前 大衆醫院 院長 鄭秉錫

京義線石岩驛前 日盛精米所

利原

利原鐵山株式會社支店

利原官公署一同

知新普通學校

利原邑釀酒所

前郡參事 姜寶秀

前道評議員 姜彭秀

李成茂 金秉式 李錫俊 姜壽道 嚴光弘 姜顯壽

芙蓉

金堤郡白鷗面月峴里 李甲植

金堤郡龍池面龍岩里 金元

金堤郡白鷗面鶴洞里 裵仲烈

無名氏

金堤郡池面鳳儀里 白南植

金堤郡龍池面鳳儀里一九九 金福斗

馬山

昌原郡內西面 合資會社 內西釀造場 社長 金奉佑 支配人 金業才

馬山府元町一三六 綿布商 金命福

馬山府元町一三七番地 綿布商 韓泰慶

昌原郡上南驛前 昌原金融組合上南支所 理事 孔五源

馬山府新町 許昌錫

馬山府元町一五〇番地 綿布商 河在駿